

50세 이상 고관절 골절되면 1년 내 사망률 20% 달해



건강 바로 알기 낙상

광주병원 정형외과 여제형 원장

추운 겨울철에는 근육이나 관절의 유연성이 저하되고, 옷을 두껍게 입으며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는 등 신체의 움직임이 둔해지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바닥이 미끄럽거나 지면이 고르지 못할 때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겨울철 낙상사고는 2015년 대비 2018년에 약 17.2% 증가했고, 이 중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약 52.1%로 급증하는 경향을 보여 겨울철 낙상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낙상이 발생할 경우 상대적으로 단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나 타박상이 발생하나, 심한 경우 골절이 동반될 수 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주로 고관절, 척추, 손목 등에 많이 발생한다. 이중 고관절과 척추 골절의 경우 대부분 장기간 치료를 요하며, 심한 경우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고관절 골절=흔히 엉덩이 관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고관절'은 골반과 대퇴골을 잇는 관절로 두 다리 사이를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구조물 중 하나이다. 따라서 고관절 골절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수개월동안 누워 생활해야 하고, 이로 인한 욕창, 폐렴, 혈전, 심장질환 등 합병증이 발생해 생명

고관절 골절 젊은층 내고정 수술
65세 이상은 인공관절 치환수술

척추압박 골절 통증 없다고 방치면
각종 합병증 불러...조기치료 중요
눈·비오는 날 가급적 외출 삼가고
미끄러운 곳 걸을 땐 보폭 줄여야

까지 위협할 수 있어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고관절이 골절된 적 있는 50세 이상 사람들은 1년 내 사망률이 남성은 22%, 여성은 17%에 달한다고 한다.

고관절은 체중의 대부분이 전달되는 곳으로 자연적인 유합이 어렵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이거나 골절이 심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뼈를 유지하면서 골절이 된 부위를 맞추고 나사못이나 골수강 내 금속정을 이용하여 뼈를 붙이는 방식의 내고정 수술을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주의해야 할 내과적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나 골절이 심한 경우는 빠른 재활 및 보행운동을 위해 파손된 뼈를 제거하고 인공 관절을 삽입하는 인공 관절 치환술로 진행하게 된다.

◇척추 압박 골절=척추 압박 골절은 넘어지거나 주저앉을 때의 충격으로 척추가 압박을 받아 척추



광주병원 여제형 원장이 최근 눈길에 미끄러져 발목을 뺀 환자를 진찰하고 있다. <광주병원 제공>

뼈에 미세하게 금이 가거나 척추체가 무너지게 되는 부상으로 낙상으로 인해 척추가 골절된 경우, 5년 내 사망률이 7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것처럼 주의해야 할 부상이다. 부상 초기에는 걷기 힘들 정도로 등 전체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호전되는 것처럼 느껴져 방치하기 쉽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오래 방치할 경우 척추 변형이 오거나 근력 약화, 장기간 보행 제한으로 인한 욕창, 폐렴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낙상 후 누울 때나 앉았

다 일어서는 등 자세를 바꿀 때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등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고, 가슴 앞쪽 갈비뼈 부위에 통증이 있으면 척추 압박 골절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 조기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척추체의 압박이 심하지 않고 후방 구조물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흉·요추 보조기 등을 이용해 허리를 고정하는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척추체의 압박이 심하거나 압박이 진행되는 경우 골시멘트를

골절이 발생한 부위에 삽입해 치료하는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해 볼 수 있고, 후방 구조물의 손상이 동반된 경우 후방 고정술을 시행할 수 있다.

◇낙상의 예방=낙상의 예방은 낙상을 일으키게 하는 주위 환경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움직임에 지장을 줄 정도로 둔한 옷을 피하며, 장갑 등을 착용해 손을 호주머니에 넣는 행동을 피한다. 또한, 미끄러운 곳을 걸을 때는 평소보다 보폭을 10~20% 줄여서 걷고, 노인들은 지팡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평소에 꾸준히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졸음이나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약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낙상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 밖을 나서기 전에 근육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준비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에도 꾸준히 가벼운 근력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과 인대를 이완시켜 주변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골밀도가 줄어들수록 골절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칼슘을 많이 섭취하고 나트륨과 카페인과 과도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 또한, 50세 이후의 여성의 경우 1년 한번 골밀도 검사를 받아 뼈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골다공증으로 진단된 경우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중년 이후에는 스트레칭, 소도구를 이용한 근력 운동, 수영 등의 운동을 꾸준히 시행하면 골밀도 감소 속도를 줄여줄 수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 인증 지원 치과 소재부품 기업 '티비엠' 가시적 성과

구강 창상용품 국산화 성공

미 FDA 승인...수출주변 확대

전남대에 설립된 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센터장 박상원)의 인증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이루고 있다.

센터의 시험평가 지원을 받은 티비엠의 창상피복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고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티비엠(대표 정재용)은 창립 이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의존하던 치과 구강 창상용품 및 자가치아뼈이식재 등 의료용 소재부품 국산화에 기여했다.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 한 TBM 구강창상피복제(Oral wound dressing)는 임플란트, 치주수술, 발치 등 치과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 후 환부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병원용 Ora-Aid(비유지놀계 치주창상 피복제)와 일반인이 구내염, 교정장치 등으로 구강 내 상처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Curatick(점착성투명창

상피복제) 2가지 제품이 있다. 특히 OTC(일반인용) 제품인 Curatick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으로 제품의 수출주변이 확대되고 있다.

티비엠의 주요 제품은 구강창상피복제와 자가치아뼈이식재이다. 구강창상피복제는 임플란트, 발치, 구내염, 교정장치 등 구강내 창상 보호 및 구강개양·구내염 등 구강 내 창상의 오염을 방지하고 보호해주는 제품으로 치과병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또한 자가치아뼈이식재는 발치한 본인의 치아를 최첨단 의료 공법으로 처리해 안전하게 만든 골 이식재로 인체에 가장 적합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정재용 티비엠 대표는 "회사를 100년 이상 지속시켜 세계에서 존경받는 기업으로서 전 직원의 행복을 추구하고 인류의 건강 증진에 공헌하고 싶다"며 "2025년 매출액 500억원 달성, 국내 시장점유율 50% 달성, 해외 매출 3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병원 '신경중재치료 인증병원' 지정

조선대병원(병원장 정종훈)이 대한신경중재치료학회(KSN)로부터 2021년부터 5년간 '신경중재치료 인증병원'으로 지정됐다.

신경중재치료는 첨단영상의학기기를 이용해 미세도관을 뇌혈관으로 삽입, 각종 뇌혈관질환 및 신경계 질환을 진단·치료하는 분야이다.

대한신경중재치료의학회는 두경부 및 척추혈관 질환 환자 치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표준 치료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신경중재치료 인증'의

와 '신경중재치료 인증병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신경중재치료 표준지침을 준수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뇌혈관 진단과 치료에 있어 수준 높은 의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 신경외과 하상우 교수가 뇌졸중, 뇌혈관수술 등에 대한 전문적 의뢰 수행능력을 인정받아 2020년 신경중재치료 인증으로 선정됐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병원 개원 50주년 발전기금 기부행렬

조선대병원(병원장 정종훈)에 병원발전기금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법인 우산의료재단(이사장 주송민)은 "조선대병원을 찾는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건축발전기금 5000만원을 쾌척했다.

의료법인 우산의료재단은 형주병원(경남 양산시)·시립중앙요양병원·금정형주요양병원(부산시) 등 정신질환 및 치매전문 의료기관을 산하병원으로 두고 있다. 특히 우산의료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주명진(조선대 의과대학 3회) 원장은 현재 금정형주요양병원장으로서 정신장애, 알코올, 치매를 비롯한 각종 노인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 및 가족에게 양질의 전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 백정선(조선대 의과대학 30회) 여러분소통내과의원(세종시) 원장은 건축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고, 박석오(조선대 의과대학 20회) 박생내과의원(경기 광명시) 원장도 500만원을 기부하는 등 병원 발전을 위한 지원이 줄을 잇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전문병원 광주다사랑병원 4회 연속 선정

광주다사랑병원(병원장 신재정)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알코올전문병원에 4회 연속 선정됐다.

전문병원이란 특정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환자구심비율 ▲진료량 ▲병상수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의료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 등 7개의 지정기준에 대해 심의를 거쳐 최종 보건복지부가 최종 선정한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 관리료 및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할 수 있다.

특히 광주다사랑병원은 전국 알코올분야 9곳의 전문병원 중 호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다사랑의료재단 신재정 이사장은 "수많은 알코올의존자들이 제대로 치료받고 있지 못하고 만성정신병원에서 겨우 해독 치료만 받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다사랑병원은 호남지역 유일의 알코올중독치료전문병원으로서 환우와 가족들의 고통을 완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